

지역도서관에 관한 단상

오래 전 일이다. 어떤 미국 영화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그 영화 자체는 아주 시시한 것이었다. 제목도, 감독도, 배우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장면만이 기억날 뿐이다. 무대는 작은 시골마을. 몇 명의 어린이들이 이 마을의 역사에 관해 무엇인가를 조사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그 어린이들은 바로 마을 도서관으로 갔다. 그리고 서고에서 옛 신문이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찾는 소중한 정보를 결국 찾아냈다.

그렇다. 지역도서관은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모아 놓는 기지여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는 지역도서관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도서관은 잘못된 것이다. 단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도서관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모아 놓아야 참된 지역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도서관은 지역의 정보에 관해 특화된 도서관이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이 지역도서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모아 놓는 기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보를 모아 놓는 이유는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지역도서관은 지역의 정보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야 한다. 모아 놓은 각종 자료들을 소개하는 자료를 발간하거나 공개강연을 열거나 학습모임을 조직하는 등의 여러 활동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도서관은 지역의 정보를 통해 지역에 관해 학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지역도서관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 문화시설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지역도서관은 대단히 근본적인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미국의 경우를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나라의 기초를 다진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 아니라 토마스 제퍼슨이다. 사실 조지 워싱턴은 악랄한 면모를 지닌 장군이었다. 그는 백인 지주들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인디언의 땅을 빼앗아야 하고, 이를 위해 인디언을 몰살해야 한다는 명령서를 보내기도 했다. 여기서 몰살이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죽이는 것을 뜻한다. 그에 관해서는 유명한 벗어나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식의 조금 덜 유명한 이야기도 전한다. <아메리칸 라이즈>, 즉 <미국의 거짓말>이라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롱한다. 미국으로 망명한 폴란드인의 아들이 시민권 심사를 받는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인 그 아들에게 판사가 묻는다.



홍 성 태\*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과 교수  
hongst3@sangji.ac.kr

워싱턴이 벚나무를 자른 것에 관한 이야기를 믿나? 잠시 생각하다가 아들은 답한다. 아니요. 판사가 다시 묻는다. 워싱턴이 강을 건넌 이야기는 믿나? 그 아들은 다시 잠시 생각하다가 답한다. 아니요. 그러자 판사가 시민권 심사에 통과했다고 말한다. 그 아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았기에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의 질문을 일종의 유도심문으로 생각했던 관객들은 여기서 안도하게 된다. 그리고 워싱턴이 그런 식의 조작된 이야기로나 유명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와 달리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바로 지역도서관이 있다.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는 만민평등 주권재민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전제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마스 제퍼슨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지역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을 전해서 그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한다는 고귀한 민주주의의 임무가 바로 지역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도서관의 가치

를 평가해야 한다. 지역도서관의 종사자들은 커다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함께 지녀야 한다.

여기서 나아가 지역도서관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도서관이 지역의 정보를 모아 놓는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는 권력'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지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결과 지역사회의 민주화가 크게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도서관은 무엇보다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활동과 출판에 주목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여정부는 '분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여러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강력히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문제나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종래의 개발주의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대 개발사업들을 전국 곳곳에서 벌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지역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주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역이 독립적 단위로 서지 못한다면, 균형도 분권도 분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독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개발주의적 경제정책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개발독재 시대를 지나며 확립된 개발주의적 사고 방식은 지역의 독립을 거의 완전히 경제적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의 지역사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무관하게 독립적이지 않다. 지역에서도 지역에 관한 정보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제퍼슨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근원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독립성에 바탕을 두고 있거니와 지역의 독립성은 이러한 시민의 독립성이 지역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독립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민의 독립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지역도서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해서 지역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역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애써라. 이것은 토마스 제퍼슨의 주장이지만, 여전히 커다란 현실적 울림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의 시대에 지역도서관의 위상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의 문화시설로서, 또한 민주주의의 기지로서 지역도서관의 본질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방식을 필요로 할 뿐이다. 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추구되고 있으니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커다란 조건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역도서관에 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지역도서관은 '지역에 있는 허술하고 영세한 소규모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

런 '편견'이 지배적인 곳에서 지역도서관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의 정보를 제대로 모아 놓지도 못하고, 민주주의의 기지로서도 구실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지역도서관에 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